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字日報 제10520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1월 14일 수요일(음력 11월 26일)

행안부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 협정 투자심사 대상”

민주당 당원 모임·道 질의에 “중투 받아야” 위법 답변
일부 고문변호사도 같은 해석 “예외 규정 적용 못해”
도 “법령 해석 주무부처인 법제처 최종 판단 받을 것”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가 맺은 손실 보전금 지급 협정에 대해 미리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 받아야 하는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법제처에 투자 심사 폐스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도 고문변호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같고 행안부마저도 위법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며 더욱 궁지에 빠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 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런 내용의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제주도가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행안부장

관에게 의뢰해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해당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을 투자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받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도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와 맺은 협정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유형에 속한다. 가령 지자체가 특정시점에

모 업체와 계약을 맺어 나중에 예산을 지출하겠다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면, 이는 당시 시점 상

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지만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추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외의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

도는 칭다오 선사 측이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해 ‘빈 배’로 다니는 등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8억원을 보전하기로 협정을 맺은 상태다.

도는 그동안 칭다오 선사 손실보전금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도가 근거로 든 조례는 ‘제주도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에는 해상 운송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지방재정법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중 ‘조례에 규정된 것’은 투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런 도의 논리를 배척했다. 본보 취재 결과 도는 올해 초 행안부에 투자 심사 대상

인지 질의했으며, 이때도 행안부는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제주도가 방패로 삼은 항만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칭다오 항로 개설만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 지원 규정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예외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최근 도에 법률 자문을 한 A고문변호사 의견과 같은 것이다. A변호사는 해당 조례가 명확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 삼아 투자 심사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도는 법제처에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법령을 해석하는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아 투자 심사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자체가 지방재정법을 어기면 정부로부터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소상공 지식재산 창출 지원 도, 27억 투입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IP) 지원에 총 27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관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나뉜다.

지식재산 지원 사업 설명회는 오는 20일(제주시)과 21일(서귀포시)에 잇따라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참고.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말동가리-큰부리까마귀의 영역 대툼 13일 제주시 아라동 상공에서 말동가리와 큰부리까마귀가 영역 대툼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의 맛, 그대로. 손길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